

**장막절이신 그리스도와
생수의 강들로서 믿는 이들에게서
흘러나오시는 그 영이신 그리스도**

2/3 월요일

아침의 누림

레 23:39, 43

39 너희는 그 땅의 소산을 거두어들인 다음, 일곱째 달 열닷셋날부터 칠 일 동안 여호와와 명절을 지켜야 한다. 그 첫날은 완전히 안식하는 날이고, 여덟째 날도 완전히 안식하는 날이다.

43 이것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낼 때에 그들을 초막에 거주하게 했던 것을 너희의 후손이 알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

요 7:2

2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장막절이 다가왔다.

요 6:4

4 그 무렵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었다.

신 16:13-15

13 “그대는 타작마당과 포도즙 틀에서 소산을 거두어들인 다음, 칠 일 동안 장막절을 지내야 합니다.

14 그 명절에는 그대와 그대의 아들딸, 그대의 남종과 여종, 그대의 성문 안에 있는 레위인과 체류자와 고아와 과부가 다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15 그대는 여호와께서 선택하실 곳에서 칠 일 동안 여호와 그대의 하나님께 명절을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그대의 하나님께서 그대의 모든 소산과 그대가

손대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대는 다만 즐거워해야 합니다.

레위기 23 장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민을 위해 매년의 일곱 명절을 정하셨다고 말한다. 첫 번째 명절은 유월절이었고(5 절) 마지막 명절은 장막절이었다 (34 절). 유월절은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 누림의 시작이고 장막절은 그 누림의 완결이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위해 정하신 모든 명절 중 첫 번째 명절로서, 그리스도께서 그분 자신에 대한 우리 누림의 시작이시고 이러한 누림이 우리의 영적 생활의 기원이라는 것을 예표한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전체가 하나의 명절이어야 한다. ...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고난받는 생활이지만, 우리가 고난받는 것은 잔치를 더욱 누리기 위해서이다. 우리의 고난은 주님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다. 결국 우리의 고난은 잔치가 된다. 이러한 이유로 시편 23 편 5 절은 주님께서 우리의 대적들 앞에서 우리에게 상(床)을 차려 주신다고 말한다. ‘대적들’은 싸움과 고난을 가리키지만, 주님은 우리의 싸움이 잔치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고난이 상이 되게 하신다.(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10 권, 요한복음 결정 연구, 6 장, 89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유월절의 주된 누림은 유월절 어린양과 무교병이었다. 유월절 어린양에게는 구속을 위한 피가 있고 싸우고 건기 위해 필요한 고기가 있으며, 무교병은 죄 없는 생활을 상징한다(출 12:5-8). ... 피는 이스라엘

자손을 법리적으로 구속했고, 어린양의 고기는 하나님의 선민이 그것을 먹고 유기적으로 보양받고 강화되어 이집트에서 걸어 나가기 위한 것이었다. 오늘날 그리스도는 어린양이신데, 그분께는 구속을 위한 피가 있으시고, 아울러 우리가 이집트에서 나와 하나님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를 강화하고 보양하기 위한 그분 자신도 있으시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또한 무교병이신 그리스도를 먹는데, 이것은 우리가 죄 없는 생활을 살고 있음을 상징한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방면에서 우리는 그분의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그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하며(요 6:54), 또한 우리에게 영과 생명이 되는 그분의 말씀(63 절)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도록(58 절) 하늘의 떡이신 그분을 먹어야 한다. 요한복음 3 장에서 우리는 모든 것 위에 계신 신랑이신 그리스도(29-31 절)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어 하나님을 확장하시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을 확장하신 다음에, 그리스도는 그 영을 한량없이 주신다(34 절). 그런 다음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36 절).

요한은 그의 복음서에서 유월절을 먼저 언급하는데, 유월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을 법리적으로 이끌어 오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의 시작이다.

그런 다음 요한은 또한 장막절을 언급하는데, 장막절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 유기적으로 완결된 것을 상징한다. 유대인들은 좋은 땅에서 곡식을 모두 수확한 후에, 하나님께 경배하고 자신이 거둔 것을 누리기 위해 장막절을 지켰다(신 16:13-15). 사실상 그들이 함께 모인 것은 석임에 대한

실지적인 그림이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석임을 위해 일 년에 세 번 예루살렘에 가야 했다. 마지막 명절은 수확 후의 가을이었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드리면서 좋은 땅에서 수확한 소산물을 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칭송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자신들의 조상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동안 좋은 땅의 안식에 들어가기로 기대하며 천막(장막)에서 살았는지를 기억하도록 하시려고 장막절을 정하셨다(레 23:39-43). 모두에게 천막이 있었고, 하나님도 이 천막들 가운데 성막을 갖고 계셨으므로, 장막절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억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그분의 상을 세우실 때 말씀하신 것과 일치한다. 그분은 우리에게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심으로 그분을 기념하라고 하셨다(눅 22:19-20). 장막절이 하나의 기념이었던 것과 같이, 주님의 상도 하나의 기념이다.(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10 권, 요한복음 결정 연구, 6 장, 89-91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10 권, 요한복음 결정 연구, 6 장

2/4 화요일

아침의 누림

히 11:1, 8-10, 13 (9, 10)

1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질화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확증입니다.

8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부름을 받고서 장차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가라는

명령에 순종하였으며,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9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서 외국 땅에 있는 것처럼 외국인으로 머물렀으며, 동일한 약속을 함께 상속받을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천막에 살았습니다. 10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건축하신, 기초가 있는 성을 간절히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13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간직한 채 죽었습니다. 이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하였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나그네와 체류자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계 21:2-3

2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3 또 나는 보좌에서 나오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장막을 치실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직접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이 성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인 하늘에 속한 예루살렘이고(히 12:22),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며(갈 4:26),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고(계 21:2, 3:12),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위해 예비하신 성이며(히 11:16), 또한 하나님께서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 거하실 하나님의 장막이다(계 21:3). 족장들이 이 성을 바라고 기다렸듯이, 우리

또한 이 성을 추구한다(히 13:14). (히 11:10 각주 1)

오늘의 읽을 말씀

장막절은 오늘날 사람들이 아직도 광야에 있으며 영원한 장막인 새 예루살렘(계 21:2-3)의 안식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준다. 새 예루살렘은 금과 진주와 보석으로 견고하게 건축되겠지만, 여전히 장막이라고 불릴 것이다. 새 예루살렘이 장막인 이유는, 왕국 시대에서 새 예루살렘이 완결되기 전에 이기는 이들이 어떻게 이전에 계속 천막에 살았는지, 즉 그들이 어떻게 정착하지 않았는지를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갈 때 그들은 더 이상 천막에 살지 않겠지만, 그들은 자신이 체험한 것을 기억하며 여전히 자신의 영원한 거처를 장막이라고 부를 것이다. ... 장막절의 실재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사셨는지를 기념하는 누림의 시간이다. 우리는 천막에 살았고 하나님도 장막에 사셨다. 결국 우리의 장막절은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누림일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얻은 모든 수확물의 참된 완결일 것이다.

장막절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위해 정하신 모든 명절 중 마지막 명절로서(레 23:34, 39-43), 이스라엘 백성이 수확 때에 좋은 땅의 풍성한 소산을 누림으로 만족을 얻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누림과 만족을 위해 온갖 소산을 내는 우리의 좋은 땅이시다. ...

장막절은 실재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에 불과했다. 그 명절은 사람들을 만족시키지 못했고, 따라서 그 명절 끝 날에 주님은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 즉 만족하지 못한 사람은 그분께로 와서 참된 만족을 위해 마시라고 외치셨다.

이것은 장막절을 지내던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한 상태였음을 가리킨다. 참된 만족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마시는 것이었다. 그럴 때 그들은 만족했을 뿐 아니라, 또한 그들에게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넘쳤을 것이다. 이렇게 풍성이 흘러넘치는 것은 풍성이 표현된 것, 곧 충만이다. 원래 모든 풍성은 하나님 안에 담겨 있었다. 그러나 이제 이 풍성은 우리의 누림이 되어, 우리가 누린 하나님의 풍성이 흘러넘쳐 표현되는 정도에까지 이른다.

새 예루살렘은 장막이라고 불리는데(계 21:3), 그것은 새 예루살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영원토록 완전한 누림과 만족 가운데서 장막절을 참되게 지키는 이들을 가리킨다.

장막절이라는 명칭에서 ‘장막’이라는 말은 기념의 사상을 함축하고 있다. 즉, 장막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방황할 때 천막(장막)에 거한 것을 기념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새 예루살렘까지도 하나님의 장막(계 21:2-3)이라고 불리는 것은 왕국 시대에 있게 될 새 예루살렘의 첫 단계에 있는 이기는 이들이 자신들 역시 천막에 거했던 것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다.

새 예루살렘은 먼저는 이기는 이들에게 주는 보상으로 천년왕국에서 첫 열매로

완결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온전하게 된 모든 믿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완전한 누림으로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최종적으로 완결될 것이다. 이것이 참장막절일 것이다.(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10 권, 요한복음 결정 연구, 6 장, 91-94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치만 니 전집, 개정판, 37 권, 일반 메시지(1), 16 장

2/5 수요일

아침의 누림

히 11:1, 8-10, 13 (9, 10)

1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질화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확증입니다.

8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부름을 받고서 장차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가라는 명령에 순종하였으며,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9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서 외국 땅에 있는 것처럼 외국인으로 머물렀으며, 동일한 약속을 함께 상속받을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천막에 살았습니다.

10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건축하신, 기초가 있는 성을 간절히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13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간직한 채 죽었습니다. 이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하였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나그네와 체류자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계 21:2-3

2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3 또 나는 보좌에서 나오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장막을 치실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직접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제단은 우리가 자신을 위해 아무것도 간직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단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이 땅에 있음을 깨닫는 것이다. 제단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시며, 우리 삶의 의미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제단 위에 둔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 여기에 있지 않다. 그보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위해 모든 것을 제단 위에 둔다.

모레에서 주님께 제단을 쌓은 후 아브라함은 그 땅을 지나 나아갔고 ... 벤엘과 아이 사이에 이르렀다. ... 벤엘과 아이 사이에서 ... 아브라함은 또 하나의 제단을 쌓았다 (창 12:8, 13:3-4). ‘벤엘’은 ‘하나님의 집’을 뜻하고, ‘아이’는 ‘폐허 더미’를 뜻한다. 벤엘과 아이는 큰 대조를 이루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의 눈에는 오직 하나님의 집만이 가치가 있고, 다른 모든 것은 폐허 더미일 뿐임을 의미한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원칙은 동일하다. 한편으로 우리에게는 벤엘, 곧 하나님의 집인 교회생활이 있다. 하지만 그 반대편에는 폐허 더미가 있다. 교회생활과

반대되는 모든 것은 폐허 더미이다. ...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었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으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었다. 오직 그런 다음에야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활을 위한 천막을 쳤다. 아브라함이 천막에 거한 것은 그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하나의 증거가 된 것에 대한 표시였다(히 11:9).(창세기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41, 593-594, 596-597 쪽)

오늘의 읽을 말씀

그후 아브라함은 '교통'을 의미하는 헤브론으로 그의 천막을 옮겼다(창 13:18). ... 아브라함이 천막을 쳤으로써, 하나님은 이 땅 위에 사람과 대화하시고 교통하실 수 있는 장소를 얻게 되셨다. 그의 천막은 하나님을 하늘에서 땅으로 모셔왔다. 이 천막을 작은 것으로 여기지 말라. 후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부름 받아 광야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막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셨으며 또한 그 성막 앞에 제단을 만들라고 명령하셨다(출 26:1, 27:1). 그러므로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장막 곧 성막과, 제단을 본다. 그 성막은 땅에 있는 하나님의 집이었다. ... 아브라함의 천막은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제사장들의 거처로 건축한 성막의 예시였다. 창세기의 이 부분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제사장을 보는데, 그는 천막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고 그 천막 옆에는 제단이 있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나타나신 결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우리의 온 존재와 소유가 그분을 위한 것이라고 그분께 말씀드릴 때마다, 우리는 즉시 천막을 세울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천막을 세울 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음을 표현하고 선포하는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천막을 쳤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다른 나라에 속해 있음을 선포한다. ... 우리는 이 나라, 이 땅, 이 세상을 바라지 않는다. 우리는 다른 나라에 들어갈 것을 기대하고 있다. 우리는 믿음으로 외국 땅에 있는 것처럼 체류하고 있다(히 11:9).

히브리서 11 장 10 절은 “왜냐하면 그가(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건축하신, 기초가 있는 성을 간절히 기다렸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한다. 기초가 있는 이 성은 의심할 여지 없이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건축하신, 견고한 기초가 있는 새 예루살렘이다(계 21:14, 19-20). 아브라함은 어떤 기초도 없는 천막에 살면서 기초가 있는 성을 주목하며 기다렸다. 그러나 나는 아브라함이 자신이 기다리고 있던 것이 새 예루살렘임을 알고 있었다고 믿지 않는다. 심지어 많은 그리스도인조차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새 예루살렘임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이 오늘날 교회생활이라는 천막에서 생활하면서, 그 최종 완결인 새 예루살렘 곧 기초가 있는 하나님의 성을 기다리고 있는 것에 대해 분명해야 한다. 아브라함의 천막은 우주 안에서 하나님의 최종적인 장막이 될 새 예루살렘의 축소판이었다(계 21:2-

3).(창세기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41, 598-600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창세기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41

2/6 목요일

아침의 누림요 7:37-39

37 명절 끝 날, 곧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치셨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로 와서 마시십시오.

38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한 대로 그의 가장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39 이것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받을 그 영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스럽게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영께서 아직 계시지 않았다.

계 21:6

6 그분은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어졌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다. 내가 생명수의 샘을 목마른 사람에게 주어 거저 마시도록 하겠다.

계 22:17

17 그 영과 신부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십시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도 ‘오십시오!’라고 말하십시오. 목마른 사람은 오십시오. 원하는 사람은 다 생명수를 거저 받아 마시십시오.”

고후 3:17-18

17 더구나 주님은 그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께서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18 그러나 우리 모두는 너울을 벗은 얼굴로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함으로써 그분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릅니다. 이것은 주 영에게서 비롯됩니다.

부활은 사람 예수님께서 인성의 껍질에서 벗어나시어 신성한 생명을 해방하시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부활은 영광스럽게 됨이라고 불린다.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이 영광스럽게 되시기 전에는, 그 영께서 아직 계시지 않았다.

요한이 “그 영께서 아직 계시지 않았다.”(요 7:39)라고 말했을 때, 그가 의미했던 것은 그 영께서 믿는 이들에게서 생수의 강들로서 흘러나오시도록 아직 계시지 않았다는 것이다(38 절). ...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부활을 통해 그리고 그분의 부활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것은 믿는 이들 안으로 들어가셔서 생수의 강들로서 흘러나오시기 위한 것이었다(고전 15:45 하, 계 21:6, 22:17 하). 하나님은 영이시고, 육체를 입으신 삼일 하나님의 둘째께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기 이전에도 하나님은 영이셨지만, 생명주시는 영은 아니셨다.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사람 안으로 들어오셔서 사람의 생명이 되실 길이 없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는 많은 부정적인 것이 장애물로 존재했다. 창세기가 보여 주는 예표에 근거하면, 생명나무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의의 요구에 의해 닫혀 있었다(창 3:24, 참조 창세기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21).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요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타락하고 죄악되고 불결한 사람은 결코 생명나무 곧 생명이신 하나님을 취할 수 없었다.(우리의 영과 함께하는 그 영, 2 장, 28-29 쪽)

오늘의 읽을 말씀

히브리서 10 장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생명나무이신 하나님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 길 곧 새롭고 살아 있는 길이 열렸음을 계시한다(19-20 절). 그리스도는 그분의 죽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과 의의 모든 요구를 이루셨다. 그런 다음 그분은 부활 안에서 형체가 변형되어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기적인 연결을 위한 것, 즉 그분의 부활 안에서 하나님을 사람 안으로 이끄시고 사람을 하나님 안으로 이끄시기 위한 것이었다. 오늘날 우리는 생명나무를 취할 수 있고 생명수를 마실 수 있다. 그렇게 하여 삼일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들로서 흘러나오실 수 있다.

그 영은 창세기 1 장 2 절에서부터 흐르기 시작하셨다. 하나님께서 오시어 창조하신 바로 직후부터 그 영은 움직이기 시작하셨다. 그것이 바로 성경 육십육 권 전체를 관통하여 지나는 이 흐름의 시작이다. 이 흐름은 ‘그 영’에 대하여 말하는 요한계시록 22 장 17 절에서 완결된다. 그러므로 창세기 1 장 2 절에서 시작된 그 영의 흐름은 요한계시록 22 장 17 절에서 완결될 것이다. 성경의 이러한 시작과 끝 사이에 하나의 긴 흐름이 있다. ... 사람 가운데서와 사람 안에서의 하나님의 역사(歷史)는 바로 그 영의 흐름이다. 그 영에 대한 정의에는 하나님께서 사람 가운데 그리고 사람 안에서 움직이신 역사 전체가 포함된다. 이것을 본다면, 우리는 성경을 내재적으로 이해할 것이며 성경의 참된 의미를 알게 될 것이다.

이제 그 영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다. 이 생명 주시는 영은 두 번의 '되심'을 통하여 산출되신 놀라운 분이시다. 첫 번째 되심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이었다(요 1:14). 하나님은 마지막 아담이 되셨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불리셨다. 그런 다음이 사람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다(고전 15:45 하). 이것은 인간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 모두에서 위대한 두 사건이다. 온 우주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육체 되심보다 더 위대한 사건은 없다.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고, 그런 다음 삼십 삼 년 반 후에 이 사람은 다른 무언가가 되셨다. 그분은 하나님이셨고, 사람이 되셨으며, 그런 다음 이 사람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다.

삼일 하나님은 생명 주시는 영,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주영으로 완결되셨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영은 삼일 하나님의 완결이시다.(우리의 영과 함께하는 그 영, 2 장, 29-30 쪽, 3 장, 35, 38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우리의 영과 함께하는 그 영, 2 장

2/7 금요일

아침의 누림

요 20:22

22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 그들 안으로 숨을 불어 넣으시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으십시오."

고전 15:45

45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첫 사람

아담은 산 혼이 되었지만,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요 14:19-20

19 잠시 후면 세상은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하겠지만, 여러분은 나를 볼 것인데, 이것은 내가 살므로 여러분도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20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여러분이 내 안에 있으며, 내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요 15:4-5

4 내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나도 여러분 안에 거하겠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도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5 나는 포도나무요, 여러분은 가지들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떠나서는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 안으로 성령을 불어 넣으신 것은 보혜사 성령에 대한 그분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것은 사도행전 2 장 1 절부터 4 절까지에서 이루어진 것과는 다르다. 사도행전 2 장 1 절부터 4 절까지에서 이루어진 것은 누가복음 24 장 49 절에 있는 아버지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었다. 사도행전 2 장의 강하고 세찬 바람 같은 그 영은 제자들의 일을 위하여 그들 위에 능력으로 임하셨다(행 1:8). 요한복음 20 장 22 절에서 숨인 그 영은 제자들의 생활을 위해 생명으로 그들에게

불어 넣어지셨다. 그 영을 제자들 안으로 불어 넣으심으로써 주님은 그분 자신을 생명과 모든 것으로 그들 안에 나눠 주셨다.(요 20:22 각주 1)

오늘의 읽을 말씀

주님은 말씀이시고, 이 말씀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다(요 1:1). 요한복음에서 말씀은 긴 과정을 통과하여 마침내 숨, 즉 프뉴마(pneuma)가 되심으로써 믿는 이들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게 되었다(20:22).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해 그분은 두 단계를 취하셨다. 첫째로, 주님은 육체가 되시는 단계를 취하심으로 육체를 입으신 사람이 되셨고(1:14), 사람을 위해 구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어린양이 되셨으며(29 절), 사람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고(18 절), 믿는 이들에게 아버지를 나타내셨다(14:9-11). 둘째로, 주님은 죽음과 부활의 단계를 취하심으로 자신을 믿는 이들 안에 생명과 모든 것으로 나누어 주시기 위해, 또한 영원토록 삼일 하나님을 표현할 그분의 몸인 교회, 곧 하나님의 처소를 건축하시려고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인 그분의 많은 형제들을 산출하시기 위해 그 영으로 변형되셨다. 본래 주님은 영원하신 말씀이셨는데, 육체가 되심으로 하나님의 구속을 성취하셨고, 또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 영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건축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모든 것이 되시고 모든 일을 하셨다.

요한복음 20 장 22 절에서 숨인 그 영은 제자들의 생활을 위해 생명으로 그들에게 불어 넣어지셨다. 그 영을 제자들 안으로 불어 넣으심으로써 주님은 그분 자신을

생명과 모든 것으로 그들 안에 나눠 주셨다. 이렇게 하여 그분께서 요한복음 14 장부터 16 장까지에 걸쳐 말씀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고 땅에서 자라나 새롭고 생생한 또 다른 형태로 변화되듯이, 주님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육체에서 그 영으로 변형되셨다. 육체 안에서 마지막 아담이신 그분은 죽음과 부활의 과정을 거쳐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다'(고전 15:45). 주님께서 아버지의 체현이시듯이, 그 영은 그분의 실재화이시며 실재이시다. 주님께서 제자들 안으로 불어 넣어지신 것은 바로 그 영으로서이다. 주님께서 믿는 이들 안으로 받아들여지시고 그들에게서 생수의 강들로 흘러나오시는 것도 바로 그 영으로서이다(요 7:38-39). 주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거쳐 제자들에게 돌아오셔서, 그들의 보혜사로서 그들 안에 들어가셔서 거하시기 시작하신 것도 그 영으로서이다(요 14:16-17). 주님께서 제자들 안에 사실 수 있고, 제자들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 살 수 있게 하시는 것도 그 영으로서이다(요 14:19). 주님께서 제

자들 안에 거하실 수 있고, 제자들이 그분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시는 것도 그 영으로서이다(요 14:20, 15:4-5). 주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서서 그와 함께 서로 거처를 정하시는 것도 그 영으로서이다(요 14:23). 주님께서 그분의 온 존재와 그분께서 소유하신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온전히 실재가 되게 하시는 것도 그 영으로서이다 (요 16:13-16). 주님께서 오셔서 교회인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모여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선포하시고, 그들 가운데서 아버지를 찬양하시는 것도 그 영으로서이다(히 2:11-12). 아버지께서 주님을 보내신 것과 같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분의 위임을 맡기셔서, 제자들의 생명이 되실 뿐 아니라 제자들의 모든 것이 되시는 자신과 함께 그들을 보내실 수 있는 것도 그 영으로서이다 (요 20:21). 그러므로 제자들은 주님의 위임을 수행하기 위해 주님의 몸의 교통 안에서 그분의 권위를 가지고 그분을 대표할 자격을 지닌다(요 20:23).(요한복음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2 권, 메시지 46, 345-346, 350-351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우리의 영과 함께하는 그 영, 3 장

2/8 토요일

아침의 누림

출 30:23-24

23 “너는 또 가장 좋은 향료를 가져오되 액체 몰약 오백 세겔, 향기로운 육계를 그 절반인 이백오십 세겔, 향기로운 창포 이백오십 세겔,

24 계피 오백 세겔을 성소 세겔에 따라 가져오고 올리브기름 한 힌도 가져오너라.

요일 2:20

20 여러분에게는 거룩하신 분의 기름바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압니다.

고전 3:6, 9, 12-13

6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9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경작지이며,

하나님의 건축물입니다.

12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건축하면, 13 그날에 각 사람의 일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그 일을 밝혀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불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떠한 종류의 것인지를 검증해 줄 것입니다.

그 영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철저하지 않다면, 우리는 합당하고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우리가 그 영을 알고 체험하는 것에 달려 있다.

신약에 있는 그영의 더 전진된 방면은...기름바르시는 복합되신 영이다. 이 복합되신 영은 출애굽기 30 장 22 절부터 30 절까지에 기록된 복합된 관유로 예표되신다. 기름은 순전히 한 가지 요소로 이루어지지만, 관유는 복합된 것이다. ...

오늘날 신약에서 그 영은 복합되신 영으로서 바르는 관유이시다.

로마서 6 장에 있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체험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로마서 8 장에 있는 그 영에 대한 체험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우리는 오직 그 영 안에서만 그리스도의 죽음을 체험할 수 있다. ...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 영 안에 있다. ... 부활의 실재는 그 영이다.

출애굽기 30 장에서 언급된 복합된 관유는 하나의 예표로서, 기름 바르시는 복합되신 영이 유일하신 하나님과 복합되어 계심을 계시한다. 여기서 유일하신 하나님은 관유의 주성분 곧 그리스도의 신성이시며,

올리브기름 한 힌(24 하절)으로 예표되신다.(우리의 영과 함께하는 그 영, 4 장, 46, 49 쪽)

오늘의 읽을 말씀

기름 바르시는 복합되신 영은 각각 오백 세겔로 이루어진 세 단위의 향료(출 30:23-24 상)로 예표된 하나님의 신성한 삼일성과 복합되신다. 가운데 오백 세겔의 단위는 각각 이백오십 세겔로 나누어졌는데, 이것은 신성한 삼일성의 둘째께서 십자가에서 나누어지신 것 곧 못 박히신 것을 상징한다.

기름 바르시는 복합되신 영은 또한 네 종류의 향료로 예표된 그리스도의 인성과 복합되신다.

그 영은 각각 몰약과 육계로 예표된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죽음의 효능과 복합되신다(출 30:23 상).

창포와 계피는 각각 기름 바르시는 복합되신 영의 요소인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부활의 쫓아내는 능력을 예표한다(출 30:23 하-24 상). 창포는 늪이나 진흙에서 위를 향하여 높이 자라는 갈대이다. 그러므로 창포는 주 예수님께서 죽음의 장소에서 일어나신 것을 상징한다. 고대에 계피는 곤충이나 뱀을 쫓아내는 방충제로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계피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쫓아내는 능력을 상징한다.

위에 언급된 모든 요소는 관유를 만들기 위해 함께 복합되었는데, 그 관유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사물과 사람에게 기름 바르기 위한 것이었다(출 30:25-30, 고후 1:21, 요일 2:20, 27).

신약에서 우리는 기름 바르시는 복합되신 영께서 성령으로서 운행하시면서 그리스도의 믿는 이들에게 도장 찍으시는 것을 본다(엡 1:13, 4:30 하, 고후 1:22 상). 도장을 찍는 것은 기름바름을 의미한다. ... 그 영은 우리를 신성한 요소로 적시는 살아 있는 도장이시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주님, 제게 단지 한 번만 도장찍지 마시고 항상 저를 적셔 주십시오. 제게는 당신께서 도장 찍으심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적시심이 필요합니다.” 그 영에 의해 살 때 우리는 자신 안에 있는 무언가가 우리를 적시고 있음을 감지하며, 그렇게 적시는 것이 바로 지속적인 도장 찍음이다. 이러한 도장 찍음을 통해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신성한 요소가 믿는 이들 안으로 분배되고, 그들은 신성한 요소로 적셔진다. 또한 이 신성한 요소는 믿는 이들을 하나님의 유업으로 변화시킨다(엡 1:11).

‘주 영’은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복합적인 칭호이다(고후 3:18)... ‘공기같은 영이신 그리스도’는 영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리스도와 그 영은 분리된 둘이 아니라 하나이다. 주 영은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이다.

공기같은 영이신 그리스도이신 주 영은 믿는 이들을 신진대사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게 하시어 한 단계의 영광에서 더 높은 단계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시다. ... 이러한 변화는 생각이 새로워짐으로 일어나며,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성장과 건축을 위한 것이다.(우리의 영과 함께하는 그 영, 4 장, 50-51 쪽, 3 장, 36-37 쪽)

추가로 읽을 말씀: 그 영, 개정판, 2 장; 우리의 영과 함께하는 그 영, 4 장

추가로 읽을 말씀

요한복음 결정 연구, 6장

찬송: 1193 (英) 생명은 그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신

2/9 주일

아침의 누림

엡 4:16

16 그분으로부터 온몸은 그 풍성한 공급을 해 주는 각 마디를 통하여, 그리고 각 지체가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하여 함께 결합되고 함께 짜입니다. 그래서 몸이 자람으로써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요일 5:6

6 물과 피를 통하여 오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증언하시는 분은 그 영이십니다. 왜냐하면 그 영께서 실재이시기 때문입니다.

요 16:13

13 그러나 실재의 영께서 오시면, 그분께서 여러분을 모든 실재 안으로 안내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말씀하시며, 장차 올 일들을 여러분에게 알려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전 2:10

10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영을 통해

그것들을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은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이들까지도 꿰뚫어 보시기 때문입니다.

고전 6:17

17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주님과 한
영입니다.

벧전 2:11

11 사랑하는 여러분, 나그네와 체류자와
같은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고,

갈 3:7

7 그러므로 믿음에 속한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아십시오.